

# 잘 키운 IP 하나로 영화·공연까지 진격... 신작 갈등은 심화

(지식재산권)

넥슨·스마일게이트·크래프톤 등 국내 게임사 IP 활용 신사업 강화 신작 개발 주춤, '주객전도' 우려

국내 게임사들이 본업과 관련된 신사업 분야 확장에 속력을 내는 분위기다. 현재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우선순위에 뒀다. 게임사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콘텐츠 사업 확장으로 지난해 부진했던 실적 반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엔터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넥슨과 스마일게이트다.

우선, 넥슨은 제 2의 디즈니를 꿈꾸며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확장하는 게 목표다. 이에 '마블'로 유명한 할리우드 영화 감독의 스튜디오 'AGBO'에 투자해 지분 40%를 확보하고 지난 2020년 디즈니에서 인수합병(M&A)과 사업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케빈 메이어나 니 반 다이크를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영입했다.

이후 미국영화 드라마 제작사에 4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넥슨과 YG엔터테인먼트, 네이



게임과 공연을 접목한 '제1회 보더리스 콘서트'

/넥슨

버, 위지웍스튜디오, 엔피 등이 미래형 문화 콘텐츠 산업 선도를 목적으로 설립한 합작법인인 YN C&S(컬처&스페이스)에 150억원을 출자해 의정부시 산곡동 일대에 조성 예정인 '의정부리듬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또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공연에도 넥슨의 IP를 적용한다. 넥슨재단은 11일과 12일 양일간 제1회 '보더리스 공연: PLAY판' 공연과 갈라 공연을 개최했다. 보더리스는 게임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실험적인

예술 창작을 지원, 게임 문화 콘텐츠 가치를 확산하고 예술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 넥슨재단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해당 공연은 넥슨의 게임음악 OST를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등 예술적으로 접근한 형태다.

넥슨 관계자는 "게임 IP를 활용할 실험적인 예술 창작을 보더리스 공연 등을 통해 지원해 게임의 문화콘텐츠적 가치를 확산하고 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게임 IP의 가치를 다양한 영역

에서 조명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다음으로 스마일게이트는 버추얼 아티스트를 필두로 엔터사업을 키워나가고 있다.

스마일게이트의 버추얼 아티스트 '한유아'는 최근 첫 음원을 발표한 뒤 다양한 기업들과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의 IP를 이용한 드라마, 영화제작에도 손을 뻗는다.

중국 드라마 제작사 유허그미디어와 협업해 게임 '크로스피어' IP를 바탕으로 동일 명의 드라마를 중국 텐센트 비디오를 통해 방영해 약 20억회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다. 소니픽처스와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래프톤도 영화제작에 가장 적극적이다. 크래프톤은 지금까지 총 9종의 영상 및 영화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미스터리 언노운: 배틀그라운드 탄생(다큐) ▲그라운드 제로(단편영화) ▲트로이의 몰락(뮤직비디오 형태의 시네마틱 영상) ▲뉴스테이트 모바일(게임) ▲100(웹툰) ▲침묵의 밤(웹툰) ▲리트리츠(웹툰) ▲방관자들(단편영화) ▲붉은 얼굴(단편영화) 등이다.

이중 그라운드제로는 배우 마동석이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업계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게임이 가장 강력한 미디어가 될 것이라는 변함 없는 믿음으로 계속 IP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게임업계의 이같은 행보는 부진했던 지난해 실적을 매꾸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본업 외에 너무 많은 분야 진출이 인건비 상승이나 비용 부담에 주 원인이 될 수 있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게임업계 대부분이 신사업 확장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다. 신작개발이 더디자 기존의 IP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며 "게임사의 본업은 게임출시와 그를 통한 글로벌 확장이다. 물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너무 신사업에만 치중하다 보면 그에 따른 인건비, 광고비, 개발비 등이 부담으로 다가와 신작 개발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올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창립 60주년 쌍용C&E, 종합 환경기업 선언

탈석탄, 100% 자가발전 실현 등 ESG 경영 비전 '그린 2030' 추진

국내 시멘트업계를 이끌어 온 쌍용C&E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종합환경기업으로 도약한다.

쌍용C&E는 창립 60주년 기념일(5월 14일)에 앞서 12일 본사와 전국 사업장에서 기념식을 열고 '종합환경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현준 쌍용C&E 사장은 창립 60주년 기념사에서 "쌍용C&E가 걸어온 60년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국내 시멘트업계의 발전을 선도해 온 역사였다"며 "대내외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2030년까지 탈석탄, 100% 자가발전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비전인 '그린(Green) 2030'의 추진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종합환경기업으로 도약해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100년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쌍용C&E 이현준 사장, 홍사승 회장 등 임직원들이 12일 개최한 창립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쌍용C&E

이날 기념식에서는 회사 발전에 기여한 17명의 임직원들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했다.

1962년 5월 시멘트사업에 첫 발을 내디딘 쌍용C&E는 국가기간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며, 건설현장의 핵심 자재인 시멘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국내 건설산업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다.

2016년에는 한앤컴퍼니로 대주주가 바뀐 후 대규모 투자를 수반한 원가경

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내 시멘트업계 최초로 ESG경영을 도입하고, 순환자원 사용량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2030년에는 화석연료인 유연탄을 전량 순환자원으로 대체하겠다는 '탈석탄 경영'과 함께 탄소중립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신세계까사, 첫 분기 흑자달성 성공

1분기 매출 732억, 영업익 50억

신세계까사가 신세계그룹 편입 4년 만에 분기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이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는 35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1634억원 이던 매출이 지난해엔 40.8% 늘어난 2301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전년보다 52% 높게 목표를 잡는 등 공격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2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732억원의 매출과 50억원의 영업이익(EBITDA)을 기록했다. 2018년 3월 신세계그룹 식구가 된 이후 분기 기준 첫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다. 신세계까사는 영업이익이 2021년 -107억원, 2022년 -89억원으로 각각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로는 지난해

에 창사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장상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가구, 인테리어 수요가 2021년 당시의 열풍 만큼 크지 않았던 지난해에만 전년보다 40%가 넘는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며 한껏 고무됐다.

신세계까사 김현진 마케팅 담당(상무)은 "신세계그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 DNA와 유통 역량을 적극 살린 다양한 신사업과 더불어 공간·상품·서비스 등 전방위적 혁신을 통해 오직 신세계까사에서만 가능한 색다른 가치를 경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중견기업 "尹 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제활성화"

규제 혁파, 중견·중소 육성 등 요구

중견기업계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를 꼽았다.

10곳 중 4곳 정도는 새 정부 출범 후 기업 경영 환경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별다른 것 없다는 전망도 비슷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8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출범, 중견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의 67.6%는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경제활성화'를 지목했다. 이외에 '국민통합'(13.3%), '정부개혁'(5.9%), '노동개혁'(4.8%)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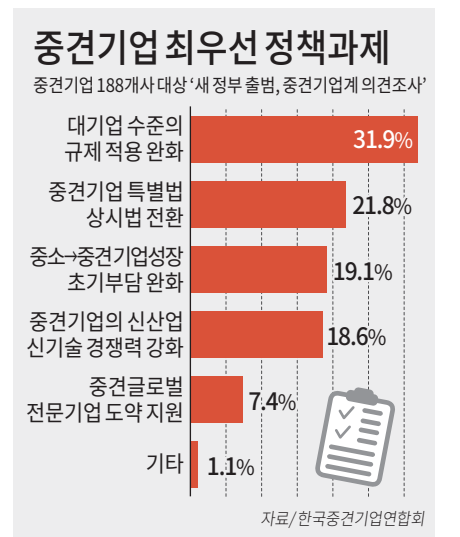
또 최우선 경제 정책 과제로는 ▲성장 저해 규제 혁파(32.4%) ▲중견·중소기업 육성(25.0%)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23.4%)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규제 혁파(38.8%)', 비제조업은 '중견·중소기업 육성(30.6%)'을 1순위 경제 정책 과제로 꼽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영 환경이 '호전될 것'이라는 질문에는 44.2%의 기업이 '그렇다'고 답했다. 48.9%는 '기존과 동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경영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6.9%, '매우 악화될 것'으로 내다본 비율은 1.6%에 그쳤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특히 도소매, 기계장비, 건설, 운수 업종 중견기업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 중견기업과의 인터뷰는 물론, 국정 과제에서 확인되는 민간 주도 성장, 산업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견기업 육성 정책 과제로는



'대기업 수준의 규제 완화(31.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등 중견기업 육성 정책 기반 강화(21.8%)', '초기 중견기업 성장 부담 완화(19.1%)', '신산업·신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18.6%)' 등 요구도 적지 않았다.

중견기업들은 또 새 정부가 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 관련 재정·세제 지원 확대(42.0%)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25.5%) ▲유턴지원 등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21.3%) 등 정책적 노력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견기업계의 기대감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로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순환을 회복할 획기적 수준의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